

# 청년농업인의 공동체 의식이 영농지속 의향에 미치는 영향

- 청년농업인 공동체 4-H회를 중심으로 -

전미리\*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 Sense of Community Influencing Intent to Continue Farming for Young Farmers

- Focusing on the Young Farmers 4-H Community -

Mi-Ri Jun

Extension Specialist,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ense of community influencing Intent to continue farming for young farmers to sustain their farming. Data were collected from 124 young farmers during October 2023 among members of the 4-H youth organization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the sense of community was classified into three dimensions: sense of belonging,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ty bond. It was found that the intention to continue farming was classified into two dimensions: economic and social factors.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with less than five years of 4-H involvement had higher community awareness than those with more than five years. This study suggests that early-stage participants be more influenced by group belonging and interaction. Additionally, community awareness positively influenced both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farming sustainability. Thus, higher community awareness among young farmers enhances the sustainability of their practice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addresses the previously unexplored relationship between young farmers' community awareness and farming sustainability, suggesting that fostering community awareness can improve sustainable agricultural practices.

**Key words:** young farmer, sense of community, intent to continue farming

## 1. 서론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농촌 지역사회의 진입과 정착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정하나, 2022). 청년농업인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정책과 현실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각종 육성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될 때 정책이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강혜정, 2017),

청년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부분이 아직 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정진철, 2020).

실제로 통계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가 경영주는 2023년 기준 999,022명이며,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주는 전체 농업경영주의 단 0.5%(5,439명)로 매우 소수이다. 특히 청년농업인의 영농승계를 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마상진 & 김강호, 2010)있으며, 이렇듯 영농승계 비율이 낮고 신규 창업농에 의한 영농실행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한다면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송인하, 2022).

주요어: 청년농업인, 공동체 의식, 영농지속 의향

\* 교신저자(전미리) 전화: 031-8008-9393, e-mail: jmr0403@gg.go.kr

농촌 지역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활동보다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 농촌 마을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최수명 외, 2011). 청년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촌지역에 정착하고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청년농업인 간의 협력과 유대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청년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년들을 농업으로의 유입과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분야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진입 외에도 농업을 유지하고 농촌지역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되는 청년농업인 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농촌 공동체 인식을 연구했던 선행 연구(임광명, 2017; 장우석 & 정남수, 2013; 성화자 & 이강형, 2013; 정성욱 & 장동현, 2020; 이한나, & 김승희, 2022)에서는 마을 구성원의 일부로 세대 간, 가족 간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을 지속하는 문제는 지역 전체 공동체 인식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청년농업인만의 공동체에서의 관계 인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청년농업인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는 도시에서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는데, 이는 청년의 절대적인 수가 제한적이며 농업의 특성상 공동의 유대관계는 농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청년농업인의 지역 공동체가 영농을 지속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영농지속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년농업인이 농업을 유지하고 농촌지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시사점을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공동체 의식에 대한 고찰

McMillan, & Chavis(1986)는 공동체 의식은 장소와 관련된 지역적, 지리적 개념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관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Mattessich, Center, Mattessich, & Monsey(1997)은 농촌 공동체를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살면서 상호 간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회적

고 심리적인 유대를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임광명(2017)은 공동체 의식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활공동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상호작용과 집합의식, 공동 연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였다. 농촌지역에서 공동체 의식은 농촌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이는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적 유대감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망 형성,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삶의 질(Davidson, & Cotter, 1991; Farrell, Aubry, & Coulombe, 2004), 사회적 유대감(Wikinson, 2007)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렇듯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집단 전체의 안녕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특성이다(김태한, 2017).

특히 청년농업인은 농업에 새롭게 진입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4H나 자생적 모임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관계는 청년농업인이 영농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체계를 구축하며 농업에 정착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한다(이소영, 이민수, & 김진진, 202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특성을 분석한 이소영, 이민수, & 김진진(2022)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조합 가입여부 등 사회적 특성을 측정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에서 청년농업인들의 사회적네트워크 수준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청년농업인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연구는 농촌지역 전체가 아닌 청년농업인 간의 공동체 의식을 우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년농업인이 인식하는 공동체 의식과 관련해서는 다소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지금의 청년농업인은 MZ세대라고 불리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로 이 들만이 가지는 청년공동체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지역사회 전체 공동체 인식을 측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청년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청년농업인 간의 공동체 의식은 영농지속 의향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2. 영농지속 의향에 대한 고찰

한국 농업의 지속적 발전은 창업농의 충원과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달려있다(김정호, 2002), 영농지속성에

서 영농은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양하여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하며, 지속성은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려는 성질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성이란 인간이 삶의 터전으로 삼는 자연환경 또는 공공자원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경제·사회적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영농과 지속성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환경적 측면, 생존을 위한 경제적 이윤 창출과 성장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경제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가치 및 규범을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을 의미한다(권태경, & 장동현, 2021).

Perdana, Hardyatuti, & Hartono(2018)의 연구에서는 농업 지속 의향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가족의 지원, 농업 그룹 내 상호작용, 사유재산권에 대한 태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박관우(2020)의 연구에서는 귀농지속의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초기 진입시기에 금융적 지원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 외에도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 하였다. 마상진, & 정기환(2008)의 연구에서는 신규 귀농자들이 겪는 진입장애 해소의 실마리는 경제적 자본 요인보다는 사회 연결망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홍성효, 송정기, & 김종수(2012)의 연구에서도 귀농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수준의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보다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장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영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과 같은 개인적인 측면 외에도 지역 공동체와 같은 관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권태경, & 장동현(2021)의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청년농업인의 연령층을 고려할 때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을 포괄하여 영농지속성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경제성 및 사회성의 부분을 포함하여 영농지속 의향을 측정하고, 청년농업인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성을 알아보자 한다.

### 2.3. 청년농업인의 특성에 대한 고찰

청년농업인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의 수가 줄어든 데에는 높은 토지가격, 신용 및 정책 지원 접근의 어려움 등 농업 부문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장벽과 젊은 세대의 농장 승계에 부정적인 인식

(Katchova, & Ahearn, 2016)이 있기 때문이다. Hounsome, Hounsome, Edwards, & Hounsome(2012)에 따르면, 승계가 가능한 경우에도 잠재적인 농장 후계자는 종종 힘든 육체 노동, 외로움, 고립, 불안정한 경제 상황 및 날씨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안다섬, 장동현, & 문수희(2022)의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이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경우 가족과 사회적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이것은 청년농업인이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또래나 선배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교육받으면서 스트레스를 감당시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에 청년농업인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기존의 동아리 사업과 품목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청년농업인 공동체는 4H회로 20세-39세까지의 연령이 해당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과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갖춰야 할 역할을 키우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방기혁, 2024) 한국4에이치 활동지원 법과 기본시책에 따라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도 및 시·군 농촌진흥기관인 공공부문과 한국4H본부 및 지역4H본부 등 민간부문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4H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다(정진철, 박보람, & 구장희, 2022).

## 3. 연구방법

###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들의 공동체 의식의 특성을 알아보고 공동체 의식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지속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농촌 지역에서 청년농업인 공동체는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단체는 현재 청년 4H회이다.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이 4H회에 가입되어있고, 시군 지역단위에서부터 광역시와 중앙단위까지 민간단체로서의 체계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4H회에 가입되어 있는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정하였다. 설문은 2023년 10월 한달 간에 걸쳐 경기도4H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124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교육을 받은 설문조사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와 1:1 면담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청년농업인의 공동체 의식과 영농 지속 의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농촌지역 공동체 의식과 영농지속 의사를 측정했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변인을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공동체 의식, 영농지속 의향,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공동체 의식은 정남식(2020, 2021), 당인숙, & 류진아(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소속감 요인으로 4H에 대한 애착심, 자부심, 영향력, 소속감, 4H활동에 대한 의미와 관련된 5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으로 문제해결, 서로 간 긍정적 영향력, 나에게 긍정적 영향력, 4H발전 기여도, 육구 충족 여부와 관련된 5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공동의 유대의 요인으로 도움여부, 서로 간의 의지, 4H회원이 잘되면 나에게도 좋음, 나에게 대하여 걱정해주는 4H회원 여부, 4H활동 참여 지속여부의 5가지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영농지속 의향은 권태경(2021), 권태경, & 장동현(2021), 송인하(2022), 조윤희, 이강오, & 송경환(2022)의 연구를 참고하여 경제성의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자	78	64.5
	여자	43	35.5
결혼유무	미혼	90	74.4
	기혼	31	25.6
연령	20~25세 미만	12	9.9
	25~30세 미만	41	33.9
	30~35세 미만	31	25.6
	35~40세 미만	37	30.6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1	0.9
	고등학교 졸업	21	17.3
	대학교 졸업	92	76.0
	대학원 졸업	7	5.8
농사경력	1년 미만	26	21.5
	1~3년 미만	37	30.6
	3~5년 미만	19	15.7
	5~10년 미만	31	25.6
	10년 이상	8	6.6
4-H활동 경력	1년 미만	32	26.4
	1~3년 미만	39	32.2
	3~5년 미만	25	20.7
	5~10년 미만	21	17.4
임원경험 유무	있음	64	52.9
	없음	57	47.1

요인으로 농업에 대한 전망, 매출액 증가여부, 지속적 성장성, 새로운 시도, 소비자 만족도와 관련된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성의 요인으로 농업인에 대한 포용력, 협력 의사,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소통 여부,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 여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 여부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3.3. 분석

수집된 설문지는 총 124부로 불성실한 응답으로 제거된 3개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121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 유효 표본은 코딩(Coding) 과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처리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Ver. 23를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분석, t-test, 공동체 의식 및 영농지속 의향 요인은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78명(64.5%), 여자가 43명(35.5%)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연령으로는 25~30세 미만이 41명(33.9%), 35~40세 미만이 37명(30.6%), 30~35세 미만이 31명(25.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에서는 미혼이 90명(74.4%), 기혼이 31명(25.6%)로 20대~30대의 청년농업인들인 만큼 미혼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 수준으로는 대학교 졸업자가 92명(76.0%), 대학원 졸업이 7명(5.8%)로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농사경력으로는 1~3년 미만이 37명(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 미만이 31명(25.6%), 1년 미만이 26명(21.5%), 3~5년 미만이 19명(15.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4-H활동 경력으로는 1~3년 미만이 39명(32.2%), 1년 미만이 32명(26.4%), 3~5년 미만이 25명(20.7%), 5~10년 미만이 21명(17.4%), 10년 이상이 4명(3.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임원경험 유무로는 64명(52.9%)이 임원경험이 있었으며, 57명(47.1%)가 임원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 공동체 의식 및 영농지속 의향 요인분석

### 4.2.1. 공동체 의식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은 직각회전방식(Orthogonal rotation)의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요인 적재량이 0.4이하인 변수는 제외하였다. 공동체 의식 요인에서 추출된 3개의 요인은 공통 요인에 묶인 질문 항목의 특성에 근거하여 공동체 인식 요인의 하위 항목을 규정하였다.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값이 0.941로 0.5이상으로 적합하였으며, Bartlett 값의 유의함으로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공동체 의식의 요인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요인에는 ‘나는 4-H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4-H 소속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4-H활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H외에 소속된 것을 편안하다고 느낀다’, ‘4-H활동은 의미있는 일이라 느낀다’가 포함되었다. 5가지 항목을 ‘소속감’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32.76%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공통 요인에는 ‘4-H회는 단결하여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4-H회원들은 서로 간 좋은 영향력을 준다’, ‘4-H회원들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내가 노력하면 4-H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4-H활동은 회원들의 정보제공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해준다’가 포함되었다. 5가지 항목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

력은 26.48%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 공통 요인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4-H회원들이 도움을 준다’, ‘4-H회원 간 서로 의지할 수 있다’, ‘4-H회원이 잘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나를 걱정해주는 4-H회원이 있다’, ‘지속적으로 4-H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5가지 항목을 ‘공동의 유대’로 명명하였고,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25.908%를 차지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측정도구에서 설정하였던 3가지 요인과 동일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 4.2.2. 영농지속 의향 요인분석

영농지속 의향 요인에서 추출된 2개의 요인은 공통 요인에 묶인 질문 항목의 특성에 근거하여 공동체 인식 요인의 하위 항목을 규정하였다.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값이 0.900로 0.5이상으로 적합하였으며, Bartlett 값의 유의함으로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영농지속 의향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요인에는 ‘나는 농업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농업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나는 향후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나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노력한다’, ‘내가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가 포함되었다. 5가지 항목을 ‘경제성’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

<표 2> 공동체 의식 요인분석

요인명	항목	평균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신뢰도( $\alpha$ )	
공동체 의식	나는 4-H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4.40	.843	.902	4.914	32.76	.949	
	4-H에 소속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4.39	.838	.898				
	소속감 4-H활동을 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39	.765	.837				
	4-H회에 소속된 것을 편안하다고 느낀다	4.38	.564	.810				
	4-H활동은 의미있는 일이라 느낀다.	4.46	.614	.840				
	사회적 상호작용	4-H회는 단결하여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4.23	.742	.844	3.972	26.48	.942
		4-H회원들은 서로 간 좋은 영향력을 준다.	4.51	.701	.856			
		4-H회원들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4.45	.575	.854			
		내가 노력하면 4-H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4.38	.598	.798			
		4-H활동은 회원들의 정보제공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해준다.	4.43	.598	.848			
공동의 유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4-H회원들이 도움을 준다.	4.44	.701	.863	3.886	25.908	.952	
	4-H회원 간 서로 의지할 수 있다.	4.45	.702	.810				
	4-H회원이 잘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4.51	.846	.896				
	나를 걱정해주는 4-H회원이 있다.	4.51	.848	.874				
	지속적으로 4-H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4.53	.786	.843				
통계량	전체 설명력 : 85.148%, KOM 측도 : .94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 2099.694, 자유도(df)=105, 유의확률 : 0.000**							

의 설명력은 42.084%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공통 요인에는 ‘나는 새로운 농업인을 포용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영농활동에 있어서 인근 농업인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 ‘나는 영농활동 지속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소통하고 있다’, ‘나는 영농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나는 농촌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한다’가 포함되었다. 5가지 항목을 ‘사회성’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35.146%를 차지하였다. 영농지속 의향 요인 역시 선행연구를 통해 측정도구에서 설정하였던 2가지 요인과 동일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 4.3. 4-H활동 기간에 따른 평균 분석

#### 4.3.1. 4-H활동 기간에 따른 공동체 의식

4-H활동 기간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차이를 분석하면 <표 4>와 같다. 청년농업인의 공동체 의식은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H활동 기간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속감의 모든 항목과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에서 ‘4-H회원들은 서로 간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나타냈다.

4-H활동 기간이 5년 미만인 집단이 5년 이상인 집단에 비해

<표 3> 영농지속 의향 요인분석

요인명	항목	평균	요인적재량	공동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신뢰도( $\alpha$ )
영농지속의향	나는 농업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	4.27	.873	.810			
	나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농업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4.18	.808	.728			
	경제성 나는 향후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4.39	.726	.794	4.208	42.084	.900
	나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노력한다.	4.39	.655	.721			
	내가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4.22	.735	.658			
	나는 새로운 농업인을 포용하려고 노력한다.	4.40	.881	.851			
	나는 영농활동에 있어서 인근 농업인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	4.41	.855	.795			
	사회성 나는 영농활동 지속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소통하고 있다	4.36	.825	.847	3.515	35.146	.935
	나는 영농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4.25	.715	.676			
	나는 농촌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한다.	4.44	.843	.843			
통계량	전체 설명력 : 77.23%, KOM 측도 : .90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 976.982, 자유도(df)=45, 유의확률 : 0.000**						

<표 4> 공동체 의식의 4-H활동 기간에 따른 평균 차이

구분	5년 이하	5년 이상	유의 수준	
소속감	나는 4-H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4.48	4.11	0.048*
	4-H에 소속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4.48	4.11	0.048*
	4-H활동을 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61	4.39	0.001**
	4-H회에 소속된 것을 편안하다고 느낀다	4.64	4.14	0.005**
	4-H활동은 의미있는 일이라 느낀다.	4.64	4.22	0.019*
사회적 상호 작용	4-H회는 단결하여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4.54	3.97	0.006**
	4-H회원들은 서로 간 좋은 영향력을 준다.	4.74	4.34	0.007**
	4-H회원들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4.61	4.28	0.092
	내가 노력하면 4-H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4.64	4.20	0.027*
	4-H활동은 회원들의 정보제공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해준다.	4.64	4.31	0.042*
공동의 유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4-H회원들이 도움을 준다.	4.58	4.28	0.119
	4-H회원 간 서로 의지할 수 있다.	4.54	4.31	0.241
	4-H회원이 잘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4.64	4.31	0.081
	나를 걱정해주는 4-H회원이 있다.	4.61	4.37	0.206
	지속적으로 4-H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4.64	4.40	0.199

\* p<0,05, \*\* p<0,01

여 소속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동체 의식이 더욱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 4-H활동에서 청년농업인이 4-H회 단체활동을 하면서 소속감과 4-H회원 간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공동의 유대의 경우 4-H활동 기간에 따른 통계학적 평균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는 4-H회 활동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5년 이하의 신입 회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유대 관계를 인식하고 있고 지속되고 있는 요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의 3가지 요인에서 다른 요인보다도 더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된다.

### 4.3.2. 4-H활동 기간에 따른 영농지속 의향

4-H활동 기간에 따른 영농지속 의향의 차이를 분석하면 <표 5>와 같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지속 의향은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이상으로 영농지속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H활동 기간에 따른 통계학적 평균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 4.4. 공동체 의식이 영농지속 의향에 미치는 영향

### 4.4.1. 공동체 의식이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이 영농지속 의향의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회귀분석에서 변수의 입력방식은 종속변수에 많은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단계적 선택(step-wise)방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 영농지속 의향의 소속감 요인을 독립변수로 공동체 의식의 소속감,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요인을 설정

하였다. VIF는 1.000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공동체 의식의 소속감,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요인에 대한 설명력(수정된 R<sup>2</sup>)은 29.7%로 나타났다. 그 중 제1모형에서 소속감 요인의 설명력(R<sup>2</sup>)이 13.8%로 가장 영향력 있는 항목이며, 제2모형에서는 소속감과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의 설명력(R<sup>2</sup>)이 22.9%를 차지하였다. 제3모형에서는 소속감,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요인의 설명력(R<sup>2</sup>)이 29.7%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 영농지속 의향의 경제성 요인에 공동체 인식의 소속감,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의 3가지 요인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결국 영농활동과 농촌지역 사회에서 공동체 인식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며, 특히 초기 정착하는 청년농업인의 경우 청년공동체 내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4.4.2. 공동체 의식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이 영농지속 의향의 사회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로 영농지속 의향의 사회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공동체 의식의 소속감,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요인을 설정하였다. VIF는 1,000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공동체 의식의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요인에 대한 설명력(수정된 R<sup>2</sup>)은 17.4%로 나타났다. 그 중 제1모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의 설명력(R<sup>2</sup>)이 14.7%로 가장 영향력 있는 항목이며, 제2모형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 요인의 설명력(R<sup>2</sup>)이 22.9%를

<표 5> 영농지속 의향의 4-H활동 기간에 따른 평균 차이

구분	5년 이하	5년 이상	유의 수준	
경제성	나는 농업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	4.26	4.27	0.978
	나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농업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4.28	4.09	0.228
	나는 향후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4.50	4.29	0.119
	나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노력한다.	4.41	4.38	0.830
	내가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4.32	4.12	0.230
사회성	나는 새로운 농업인을 포용하려고 노력한다.	4.42	4.38	0.729
	나는 영농활동에 있어서 인근 농업인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	4.50	4.32	0.215
	나는 영농활동 지속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소통하고 있다	4.46	4.27	0.165
	나는 영농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4.30	4.20	0.493
	나는 농촌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한다.	4.47	4.40	0.493

\* p(0.05, \*\* p(0.01

〈표 6〉 공동체 의식이 영농지속 의향(경제성)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577E-16	0.084		0.000
	소속감	0.381	0.085	0.381	4.499**
R <sup>2</sup> =0.138, F=20.237					
2	(상수)	-1.232E-16	0.080		0.000
	소속감	0.381	0.080	0.381	4.757**
	사회적 상호작용	0.311	0.080	0.311	3.881**
R <sup>2</sup> =0.229, F=18.845					
3	(상수)	-1.577E-16	0.076		0.000
	소속감	0.381	0.077	0.381	4.982**
	사회적 상호작용	0.311	0.077	0.311	4.065**
	공동의 유대	0.270	0.077	0.270	3.529**
R <sup>2</sup> =0.297, F=17.934					

〈표 7〉 공동체 의식이 영농지속 의향(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7.365E-17	0.084		0.000
	사회적 상호작용	0.392	0.084	0.392	4.650**
R <sup>2</sup> =0.147, F=21.627					
2	(상수)	5.015E-17	0.083		0.000
	사회적 상호작용	0.392	0.083	0.392	4.727**
	공동의 유대	0.184	0.083	0.184	2.221**
R <sup>2</sup> =0.174, F=13.638					

차지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영농지속 의향의 사회성 요인에는 공동체 의식의 소속감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 요인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영농활동에 있어서 단순 공동체의 소속감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영농활동에 있어서 협력과 영농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성 영농지속 의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공동체 의식이 영농지속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농촌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청년단체인 4H회를 중심으로 청년농업인의 공동체 의식을 살펴보고 공동체 의식이 영농지속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청년농업인의 공동체 의식은 소속감,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의 3개 요인으로 요인 분석되었으며, 청년농업인들은 대체로 높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4H회 활동기간에 따른 차이에서 5년 미만의 집단이 5년 이상 활동한 집단보다 더 공동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업에 신규 진입한 청년농업인들은 영농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기 위하여 지역에 대한 정보나 영농기술에 대한 정보를 주로 지역 공동체를 통하여 얻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공동체 의식을 연구했던 선행연구(임광명, 2017; 백인순, 2023)와는 반대의 연구 결과를 나타냈다.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공동체에 소속된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으나, 본 연구의 청년농업인 공동체의 경우 오히려 공동체 소속 기간이 짧은 집단이 높은 공동체 의식을 나타냈다. 이는 선행 연구의 연구 집단은 다르게 본 연구의

집단이 비슷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농업인들이 농업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홍성효, 송정기, & 김종수, 2012; 송인하, 2022; 박관우, 2020)들에서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은 검증되었다. 청년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농촌에 유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간의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체 소속 기간에 따른 청년농업인의 공동체 의식 수준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공동체 소속기간이 길면 공동체 의식도 높은 수준을 보였던 선행연구(임광명, 2017; 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 2018, 이경한, & 박덕병, 2022)의 결과와는 다르게 청년농업인 간의 공동체 의식은 소속된 기간이 짧은 집단이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청년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청년4H 공동체가 청년농업인들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년농업인의 영농지속 의향은 경제성, 사회성의 2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대체로 영농지속 의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4H가입 기간에 따른 영농지속 의향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청년농업인이 농업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결국 이것은 소속 기간보다는 얼마나 더 밀접하게 공동체 내에서 상호작용하고 인식하는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청년농업인 간의 정보교류, 교육 등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 등을 통한 기회제공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청년농업인 공동체 의식이 영농지속 의향의 경제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동체 의식의 소속감,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3가지 요인 모두 영농지속 의향의 경제성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경제성 영농지속 의향이 높아진다고 판단된다. 특히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소속감으로, 공동체에 소속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공동체 활동을 의미있다고 느낄수록 농업의 경제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농업의 특성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며, 이러한 특성은 청년농업인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판단된다.

넷째, 청년농업인 공동체 의식이 영농지속 의향의 사회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동체 의식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공동의 유대 요인이 사회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동체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유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적 영농지속 의향도 높아진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안다섬, 장동현, & 문수희(2022) 연구에서 청년농업인의 사회활동이 영농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렇듯 청년농업인 간의 공동체 의식은 영농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농촌지역에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경제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간의 공동체 의식의 향상을 통한 영농지속 의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4H공동체와 같은 단체 육성, 교육, 품목 모임체 육성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청년농업인 4H회원 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전국 단위 청년농업인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지속 의향은 보다 다양한 공동체 의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 내 전체 공동체 의식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연구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문헌

1. 강혜정. (2017). 청년농업인·후계인력 육성방안.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7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3-39.
2. 권태경. (2021). 청년농업인 자립의지가 영농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권태경, & 장동현. (2021). 청년농업인의 자립의지와 영농지속성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농촌계획*, 27(2), 59-67. doi:10.12653/JECD.2017.24.4.0237
4. 김정호. (2003).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김창길. (2013).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평가*.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김태한. (2017). 근접맥락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남녀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발달에 미치는 효과. *시민교육연구*, 49(2), 1-25. doi:10.35557/trce.49.2.201706.001
7. 당인숙, & 류진아. (2017). 농촌 마을만들기 참여주민의

- 공동체 의식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4(4), 265-278. doi: 10.12653/JECD.2017.24.4.0265.
8. 마상진, & 정기환. (2008). *신규 취농의 진입장에 해소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박관우. (2020). 귀농인의 정주만족도와 귀농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 (2018). 농촌지역주민 공동체 의식의 지역사회참여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5(3), 135-148. doi:10.12653/JECD.2018.25.3.0135
  11. 방기혁. (2024). 청년농업인4-H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운영 실태 및 요구분석. *실과교육연구*, 30(2), 21-42. doi:10.29113/skpaer.2024.30.2.02
  12. 배봉영. (2014). 로컬푸드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백인순. (2023).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성희자, & 이강형. (2013).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참여와 공동체의식이 “배타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4), 315-332.
  15. 송인하. (2022). 창업농의 영농 경험과 영농 지속성. *농촌사회*, 32(2), 139-177.
  16. 안다섬, 장동현, & 문수희. (2022). 청년농업인의 스트레스가 영농만족과 이농의향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28(2), 1-9. doi:10.7851/ksrp.2022.28.2.001
  17. 이경한, & 박덕병. (2022). 어촌마을에서 공동체 의식의 지역사회참여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9(2), 65-79. doi:10.12653/jecd.2022.29.2.0065
  18. 이소영, 이민수, & 김진진. (202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책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9(2), 99-110. doi:10.12653/JECD.2022.29.2.0099
  19. 이하나, & 김승희. (2022). 지역재생을 위한 농촌공동체의 변화와 협력. *사회과학연구*, 61(2), 25-47. doi:10.22418/JSS.2022.8.61.2.25
  20. 임광명. (2017). 농촌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유형별 지역 사회활동 참여 특성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4(4), 237-248. doi:10.12653/jecd.2017.24.4.0237
  21. 유정규. (1998). 환경문제의 심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을 위한 정책과제. *유기농업학회지*, 6(2), 41-61.
  22. 장우석, & 정남수. (2013). 농촌 마을 공동체 유형에 따른 의식조사. *농촌계획*, 19(2), 51-61. doi:10.7851/ksrp.2013.19.2.051
  23. 정성욱, & 장동현. (2020). 농업인의 공동체 의식이 조직 몰입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26(1), 13-22.
  24. 정진철. (2020). 농식품산업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2020년도 한국농산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79-80.
  25. 정진철, 박보람, & 구장희. (2022). 청년농업인의 4-H 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4(4), 1-28. doi:10.23840/agehrd.2022.54.4.1
  26. 정하나. (2022). 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책의 어려움과 부모의 사회자본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사회*, 32(1), 67-108. doi:10.31894/JRS.2022.04.32.1.67
  27. 조윤희, 이강오, & 송경환. (2022). 시설원에 스마트팜 도입에 따른 변화가 지속적 영농활동 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통신학*, 47(11), 1957-1964. doi:10.7840/kics.2022.47.11.1957
  28. 홍성효, 송정기, & 김종수. (2012). 귀농귀촌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사회*, 22(2), 49-82.
  29. Davidson, W. B., & Cotter, R.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3), 246-253.
  30. Farrell, S. J., Aubry, T., & Coulombe, D. (2004). Neighborhoods and neighbor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1), 9-25. doi:10.1002/jcop.10082
  31. Mattessich, W. P., Center, W., Mattessich, P., & Monsey, B. (1997). *Community building : What makes it work*. Saint Paul, MN: Wilder Foundation Publications.
  32. McMillan, D., & Chavis, D.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33. Perdana, H., Irham, I., Hardyatuti, S., & Hartono, S. (2018). Farmers' willingness to continue corporate farming programs in Jetis Subdistrict, Bantul Regency, Yogyakarta. *Agro Ekonomi*, 31(1), 2541-1616. doi:10.22146/ae.52815
  34. Hounsome, B., Edwards, R. T., Hounsome, N., & Hounsome, J. (2011). Psychological morbidity of farmers and non-farming population: Results from a UK surve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8(4), 503-510. doi:10.1007/s10597-011-9415-8
  35. Katchova, L., & Ahearn, M. (2016). Dynamics of farmland ownership and leasing: Implications for young and beginning farmers.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8(2), 334-350. doi:10.1093/aep/ppv024
  36. Wilkinson, D. (2007).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social cohes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0(3-4), 214-229. doi:10.1007/s10464 -007-9140-1

*Received 05 June 2024; Revised 21 July 2024; Accepted 24 August 2024*



Dr. Mi-Ri Jun is an Extension Specialist of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She is interested in research related to rural and rural development.

Address: (283-33) Byeongjeom jungang -ro, Hwaseong-si, Gyeonggi-do, 18388, Republic of Korea

E-mail: jmr0403@gg.go.kr

phone: 82-31-8088-9393